

이코노 & 비즈 피플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은퇴자 도시 등 신규사업 주력 수익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위해 先 토지매입 중요
6000억 투입 오룡지구 개발도 힘쓸 것



토지매입을 해두면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공사의 자산이 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여수 경도리조트 개발이 지연되고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도 결국 선 토지매입이 안돼 과도한 보상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익부문의 수익창출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공사의 지속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것이 경영의 기본 방침이다.
-조직에 변화를 줄 생각은 있는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에 주력하겠다. 이를 태반 온화한 기후 등 자연환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남도의 특성을 살린 은퇴자도시 조성이다. 민간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규모는 크지않고 한곳당 100세대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올해 말 첫 삽을 뜨는 오룡지구 개발에도 전념하겠다. 남양신도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600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 오룡지구는 남양·옥암지구, 나주 혁신도시에 이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공사의 새로운 '캐시카우'(수익창출원)가 될 것이다.
2004년 6월 출범한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여수 경도리조트 등 신도시·산업단지·관광자원 개발 분야 22개 사업에서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5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승현(60)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제5대 사장에 취임했다. 전 사장은 사장취임 직전에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지만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을 역임하는 등 40여년간 토목직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은 '건설 및 개발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의 대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수장은 그동안 토지주택공사 등 타 기관 출신이 많아왔다. 전 사장이 공모과정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수장으로 낙점된 것은 박지사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임기말 박 지사의 현안사업을 마무리짓는 책임자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개발공사내에서는 전 사장이 건설 전문가가 아니라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추고 있어 투자유치 등 공사의 현안 해결과 의회 등 대외 소통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임 소감은.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전남도민과 박준영 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남을 대표하는 공기업 사장이란 자리라 부담이 적지않지만 공사가 전남의 지역개발에 앞장서고 도내 대표기업의 하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공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비전이 있다면.
▲민간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 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공기업 생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



‘류현진 특수’ 누리는 광주 백화점

야구 모자 잘 팔리고
가능성 티셔츠 매출 2배
‘LA 다저스’ 류현진의 연승 행진이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백화점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6층 ‘MLB’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 모자가 전년 동기대비 15%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이달 류현진이 선발 등판해 승리를 거둔 날에는 LA 다저스의 로고가 있는 야구 모자의 매출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 가량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과 함께 신시내티 레지에서 연일 불방망이를 내뿜고 있는 추신수 선수로 인한 매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 모자 외에도 다양한 야구용품

버냉키 효과에... 코스피 53.44p 급등

아시아증시 일제 상승
환율은 13.7원 하락



그동안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을 시사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패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던 버냉키 의장이 오랜만에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전미경제연구소(NBER) 주최 행사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기 확장적(통화) 정책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크게 흔들렸던 한국과 아시아 금융시장이 11일 오렌만에 화색이 돌았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53.44p(2.93%) 오른 1,877.6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날보다 16.18p(0.89%) 오른 1,840.34로 장을 시작한 뒤 점차 상승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75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3047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7원 떨어진 달러당 1,122.1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코스피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주가도 대부분 상승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167.85p(2.10%) 급등한 8,179.54로 장을 마쳤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 3시21분 기준으로 2,075.82로 3.37% 급등했으며 선전성분지수는 8,201.11으로 4.45% 폭등했다.
같은 시각 홍콩 합성지수도 2.43%으로 상승 폭이 크며 호주 S&P/ASX 200지수는 1.31% 올랐다.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연화가 강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혼조세였다.
닛케이평균주가는 0.39% 상승한

11일 서울 증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환율 1년6개월만에 낙폭 최대
11일 서울 증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 등의 여파로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13.7원 내린 달러당 1,122.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폭은 1년6개월여 만에 가장 컸다.
연환뉴스
엔화는 달러당 99엔선까지 무너지면서 98.83엔에 거래됐다. 호주달러 역시 호주달러당 0.9281달러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환뉴스

전문직 남성 33% “수영장 파티, 애인만들기 최고”
30대 전문직 남성 10명 중 3명은 호텔과 리조트 수영장장에서 열리는 파티가 이성을 만나기 좋은 장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디노블은 30대 전문직 남성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가 여름철 애인 만들기 좋은 장소로 주요 호텔과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풀사이드 파티’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그다음은 록 페스티벌(25%), 캠핑장(16%), 프로야구 뒤풀이(13%), 헬스클럽(8%) 등이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적극적인 말 걸기’가 38%로 가장 많이 꼽혔고 ‘본인만의 향’(23%), ‘로맨틱한 분위기’(19%), ‘세심한 배려’(14%) 등이 뒤를 이었다.
연환뉴스

Advertisement for Joy Tour Co., Ltd.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Japan, Korea, and Vietnam. Includes details on flight, accommodation, and pricing for various tours.